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발견 금제여래좌상 연구

임 세 운 *

I. 머리말
II.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명문
1. 금동사리외함의 명문
2.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금제여래상의 봉안
III. 금제여래좌상의 형식과 양식
1. 여래좌상의 형식
2. 여래좌상의 새로운 도상
3. 여래좌상의 양식적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국보 제79호인 구황동 금제여래좌상은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傳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 하나로 12.2cm의 작은 크기에 광배와 대좌는 금동으로, 불신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통일신라 금제불상이다(도 1).¹

금제여래좌상(이하 여래좌상)이 발견된 구황동 삼층석탑은 경주 낭산의 동북쪽 자락인 구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연구원

¹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구황동 삼층석탑은 최근 문화재청 공식 명칭이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이 사찰터에서 황복사지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정확한 유물이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皇福寺’ 명문의 기와편은 발견 장소가 불명확하고,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金銅舍利外函의 명문에도 사찰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문헌기록에 보이는 황복사 관련 기사에도 그 위치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다는 점 등을 통해, 보다 확실한 근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傳황복사지 삼층석탑’ 또는 ‘구황동 삼층석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1 <구황동 금제여래좌상>, 706년, 불신은 금, 광배와 대좌는 금동, 높이 12.2cm, 국립중앙박물관

황동사지(傳 황복사지)에 위치한 석탑으로 1942년 일본인 학자에 의해 해체수리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² 해체 당시 석탑의 2층 옥개석 상부에서 명문이 새겨진 금동사리의합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리장엄구 등과 함께 좌상과 입상 2구의 금제불상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의합의 명문에는 692년 탑을 건립하고 706년에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봉안하면서 금제아미타상 1구를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실제 석탑에서 발견된 좌상과 입상 2구의 금제불상 중 어떠한 상이 아미타상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두 상이 결한 수인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예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존명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조각수법과 표현양식에 따라 좌상이 입상보다 시대가 내려간다는 양식사적 접근을 통해 좌상을 706년에 추가로 봉안한 아미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었다.³

본 논고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여래좌상이 아미타상이라는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여래좌상이 결한 수인의 예를 중국의 상에서 찾아 정리하고 분석하여 상의 존명을 검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상의 광배와 대좌의 구조와 문양, 상호와 불신의 표현 등 그 형식과 양식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상이 지닌 중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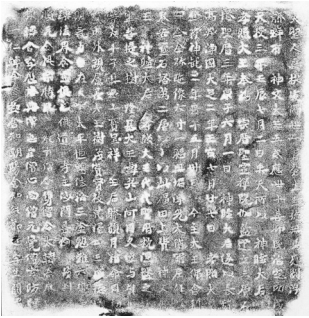
2 구황동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와 그 봉안상태에 대한 조사 기록이나 사진자료 등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연구한 일본학자들이 사리장엄구 납입상태와 수습유물 그리고 당시상황에 대해 기술한 논문이 남아있다. 杉山信三, 『朝鮮の石塔』(彰國社, 1944), pp. 98-99.; 梅原末治, 『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の舍利容器』, 『美術研究』156(1950), pp. 31-48.; 한정호, 『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 『미술사논단』22(한국미술연구소, 2006), pp. 62-66. 참고

3 구황동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우메하라 슌에지(梅原末治)와 김재원 선생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중 금제불상에 관한 연구는 1964년 김원룡 선생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여 여러 선학들이 두 상이 지닌 논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梅原末治, 『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の舍利容器』, 『美術研究』156(1950), pp. 31-47.; 김재원, "The Stone Pagoda of Kuhwang-ri in Korea," *Artibus Asiae*, vol. XIII, 1/2(1950), pp. 25-38.; 김원룡, 『韓國美術史研究의 二·三 問題』, 『亞細亞研究』7-3(1964), pp. 53-67.; 이홍직, 『慶州狼山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論叢』(乙酉文化社, 1954), pp. 37-59.;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일조각, 1989), pp. 172-174.; 淺井和春, 『皇福寺跡三層石塔發見の二体の金製佛像』, 『佛敎藝術』188(1990), pp. 80-92.

그럼 먼저 금동사리의외함의 명문 내용을 통해 석탑의 건립과 사리장엄구의 봉안에 대한 배경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명문

1. 금동사리의외함의 명문



도2 <금동사리의외함 명문 탁본>, 706년, 금동, 29.0×29.0cm, 성균관대학교박물관(성균관대학교박물관, 『신라 금석문 탁본전』, 2008, p. 61)

구황동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의외함(이하 사리의외함)의 뚜껑 안쪽에는 총 344글자의 명문이 선각되었다.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 2).

夫聖人垂拱處濁世而育蒼生至德無爲應閭浮而濟群有 ①神文大王五戒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所以 神陸太后 孝照大王奉爲 宗廟聖靈禪院伽藍建立三層石塔 ②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神陸太后遂以長辭 高昇淨國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孝照大王登霞神龍二年丙午五月卅日 今主大王佛舍利 四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以下以此福田上資 神文大王 神陸太后 孝照大王代代聖廟枕涅槃之山坐菩提之樹 隆基大王壽共山河同久位與軌川等大千子具足七寶呈祥 王后體類月精命同劫數內外親屬長大玉樹茂實寶枝梵釋四王威德增明氣力自在天下太平恒轉法輪三塗勉難六趣受樂法界含靈俱成佛道 ③寺主沙門善倫 蘇判金順元金興宗特奉 教旨僧令佛僧令太韓奈麻阿摸韓舍季歷塔典僧惠岸僧心尚僧元覺僧玄昉韓舍一仁韓舍全極舍知朝陽舍知純節匠季生闕溫

대저 성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혼탁한 세상에서 백성을 기르고 지극한 덕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①神文大王은 五戒로 세상에 應하고 十善으로 백성을 다스려 통치를 안정시키고 뜻을 이루고는 天授3년(692) 임진년 7월 2일에 돌아가셨다. 神陸太后와 孝照大王이 받들어 宗廟의 신령한 명령을 위해 禪院伽藍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② 聖曆3년(700) 경자년 6월 1일에 신목태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 높이 극락에 오르고, 大足2년(702) 임인년 7월 27일에는 孝照大王도 승하하였다. 神龍2년(706) 병오년 5월 30일에 지금의 대왕이 불사리 4과와 6치

크기의 순금제미타상 1구와 『無垢淨光大陀羅尼經』 1권을 석탑 2층 내에 안치하였다. 이 福田으로 위로는 神文大王과 神陸太后, 孝昭大王의 대대 聖廟가 열반산에 놓고 보리수에 앉는데 보람이 되기를 빈다. 지금의 隆基大王은 수명이 江山과 같이 오래하고 지위는 關川과 같이 크며 천명의 자손이 구축하고 七寶의 상서로움이 나타나기를 빈다. 왕후는 몸이 달의 정령과 같고 수명이 劫數와 같기를 빈다. 내의 친속들은 玉樹처럼 장대하고 보물가지처럼 무성하게 열매맺기를 빈다. 또한 범왕, 제석, 사천왕은 威德이 더욱 밝아지고 기력이 자재로와져 천하가 태평하고 항상 법륜을 굴러 三塗의 중생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六道중생이 즐거움을 받으며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불도를 이루기를 빈다. ③ 寺主 사문 善倫, 蘇判 金順元和 金興宗이 특별히 왕명을 받는다. 승승 僞, 승승 太, 대나마 阿摸, 대사 季歷, 塔典은 승 惠岸, 승 心尙, 승 玄昉, 대사 一仁, 대사 全極, 사지 朝陽, 사지 純節이다. 만든 이는 季生과 關溫이다.⁴

명문 중 석탑의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① 692년(天授 3) 신문왕이 승하하자, 부인인 신목태후와 장남인 효소왕이 禪院伽藍에 삼층석탑을 건립하였다. ② 700년(聖曆 3) 신목태후가 승하, 연이어 702년(大足 2) 효소왕도 승하하자, 706년(神龍 2)에 성덕왕이 불사리 4과, 순금아미타상 1구, 『無垢淨光大陀羅尼經』 1권을 석탑의 2층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692년에 신문왕이 죽자 효소왕이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탑을 건립하였고, 이후 700년에 신목태후가 죽고, 702년에 효소왕마저 죽자, 성덕왕이 706년에 석탑을 열어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봉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구황동 삼층석탑은 신문왕-효소왕-성덕왕이 관련된 신라 왕실 발원의 석탑이며, 특히 석탑 내 사리외함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성덕왕이 발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리장엄의 봉안과 관련된 16인의 인물을 기록했다.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③ 명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蘇判 金順元은 성덕왕의 교지를 받들었다고 기록되어 석탑의 불사를 총괄한 인물로 보인다. 특히 『三國史記』에 기록된 김순원은 효소왕대에 중시직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성덕왕대에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여 외척으로서 큰 활동을 한 인물이다.⁵

다음으로 塔典에 소속된 인물들이 보이는데, 탑전은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봉안할 때 석탑의 공사를 담당했던 관청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 직관지에 따르면 典이라는 단어가 鐵鑪典(철기와 유기류 제작), 磨典(각종 목공품 제작), 彩典(회화와 단청 제작), 瓦器典(도기 제작), 漏閣

⁴ 황수영, 『韓國金石遺文』(일지사, 1994), p. 146.; 정병삼, 『皇福寺 金銅舍利函記』, 『(譯註)韓國古代金石文』(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1992), pp. 346-350.

⁵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第8 孝昭王條.;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第8 聖德王條.; 김수태, 「신라 성덕왕·효소왕대 김순원의 정치적 활동」, 『동아연구』3(1983), pp. 210-219.

典(물시계 제조)처럼 각종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이 소속된 국가기관이나 집단으로 나오기 때문이다.⁶ 특히 이 탑전에는 玄昉이라는 승려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일본의 법상종 승려였던 玄昉[겐보, ?-746]과 이름이 같고 그 활동시기가 겹친다. 현재로서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당시 일본과 신라의 잦은 교류의 배경 속에서 본다면 연관성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⁷ 명단의 제일 끝에는 장인 季生과 關濶이 나오는데, 이들은 탑전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석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 중 가장 중요한 구성품인 사리함과 금제미타상을 만든 장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왕실 불사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당시 신라에서 매우 실력 있는 장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리외함 명문에 기록된 인물들은 직위나 소속명을 통해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왕실불사에서 맡은 역할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판 김순원을 제외한다면 인물들은 신라 관련 문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기록이다. 따라서 구황동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 명문은 석탑의 건립 배경과 더불어 당시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금제여래상의 봉안

위의 사리외함 명문 ②에서 살펴보았듯이, 706년 성덕왕이 석탑에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봉안할 때 “여섯 치 크기의 순금아미타상 1구와 『無垢淨光大陀羅尼經』1권을 함께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4년경 당에서 彌陀山과 法藏에 의해 한역되었으며 수명연장과 극락왕생 등의 공덕을 위해 다라니와 그 작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전이다. 주로 오래된 탑을 중수하거나, 77기 또는 99기의 진흙 소탑을 만들어 납입하는 법식이 대표적이다.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발견 당시 소실되어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사리외함의 표면에 99개의 소탑이 점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한 장엄방식이 확인된다.⁹

6 『三國史記』卷第三十八 雜誌第七 職官上.; 이영희, 「고대 삼국·통일신라의 장인」, 『한국미술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예와 장인-』(한국미술사학회, 2004), pp. 245-246.

7 탑전이 석탑의 공사를 담당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명문의 신라승 현방과 일본승 현방과의 관계에 관한 논지는 허형욱이 2006년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불교도상학특론> 수업 발표 중 제시한 것으로, 본인은 이를 참고하여 논고를 작성하였다.

8 주경미, 「한국 불사리장엄에 있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의의」, 『불교미술사학』2(2004), p. 167.

9 『무구정광대다라니경』작법 상에는 선각의 소탑 장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와 같은 2차원의 평면에서 형상화된 소탑 제작방식은 경전상의 ‘作小塔’이라는 문구를 신라화하여 창출한 독특한 조형방식으로 보았다. 주경미, 앞의 논문, pp. 179-180.



도3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692년 추정, 금, 높이 14.4cm, 국립중앙박물관

이는 당에서 704년에 한역된 새로운 경전이 2년 후에 신라의 석탑에 봉안된 것으로, 당시 당과 신라 간의 문화 유입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증명하는 부분이다.

명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여섯 치 크기의 순금아미타상 1구를 봉안하였다”는 기록이다. 명문의 기록과는 달리 사리외함 내에서는 여래좌상 이외에 또 하나의 금제여래입상(국보 제80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도 3). 금제여래입상은 전체길이 14.4cm의 상으로 불신, 광배, 대좌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있고 U자형 주름이 흐르는 통견 대의를 걸쳤다. 오른손은 시무외인, 왼손은 옷자락을 잡아 가슴까지 들어 올린 수인이 인상적인데 이와 같은 예는 인도의 상에는 많이 보이지만, 중국에는 몇 예만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독특한 도상이다. 양식적으로는 얼굴과 착의법, 보주형 두광의 화려하고 정교한 투각문양 등에서 삼국시대의 고식적인 요소가 보여 여래좌상보다는 시대가 올라가는 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양식사적으로 시대가 올라가는 여래입상을 구황동 석탑이 건립될 당시인 692년에 봉안한 상으로, 여래좌상을 706년에 추가로 봉안한 아미타상으로 보았고,¹⁰ 여래좌상과 같은 수인을 결합한 상이 당대의 아미타불좌상에서 여럿 관찰된다는 점을 통해 이러한 의견은 뒷받침되었다.¹¹ 또한 한 연구에서는 6寸이라는 크기를 이용하여 상의 존명을 밝히는 시도를 하였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쓰였던 당척과 고려척이 아닌, 후한대에 수치인 1寸의 길이가 약 2.025cm였던 周尺을 이용하면 여래좌상의 크기인 12.2cm와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는 견해

¹⁰ 김원룡, 앞의 논문, pp. 56-67. / 김리나,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教彫刻 樣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일조각, 1989), pp. 162-163.

¹¹ 금제여래좌상과 동일한 수인이 7세기 당대의 아미타불좌상에서 여럿 보인다는 의견은 논문이나 학술 연구로서 따로 발간된 적은 없고 여러 선생님이 저서나 도록 등에서 간단히 언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명대, 『원음과 고전미』(예경, 2003), p. 49.; 강우방, 광동석, 민병관, 『한국 미의 재발견-불교조각Ⅱ』(술, 2003), p. 42.; 문화재청, 『한국의 국보-회화/조각』(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7), pp. 275-276.; 최완수,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대원사, 2007), pp. 225-227.;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조각』(국립중앙박물관, 2008), p. 336.

를 제시하여, 아미타상은 여래좌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래좌상의 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진하였다. 따라서 여래좌상의 도상을 비롯한 형식과 양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존명을 보다 확실히 밝히고 상이 통일신라의 불교조각에서 지닌 위치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Ⅲ. 금제여래좌상의 형식과 양식

1. 여래좌상의 형식

구황동 금제여래좌상은 전체길이 12.2cm의 작은 상으로 불상은 순금으로, 광배와 대좌는 금동으로 만들어졌다. 불상은 속이 비어있는 中空式으로 구조되었고, 불상과 광배, 대좌는 각각 따로 만들어져 결합되었다. 특히 광배와 대좌는 두 개의 걸구로 결합되어, 정교하고 치밀한 설계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 4).

광배는 두광과 신광이 붙은 거신광의 형태로 온전한 보주형 두광에서 같은 투각문양의 외곽선이 넓고 둥글게 내려오는 구조이다(도 5). 두광 중앙에는 별도로 12장의 잎을 가진 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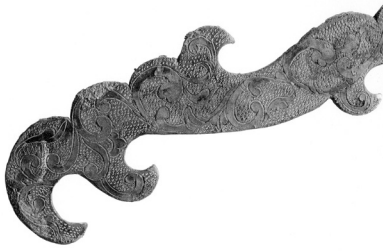
도 4 <금제여래좌상의 광배와 대좌>



도 5 <금제여래좌상의 광배 도안>
(필자 그림)

부착하였는데 연꽃 잎을 모두 앞쪽으로 접어서 마치 얼굴을 보호하듯 입체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효과는 상호 주위의 아우라를 더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이처럼 금속판을 오려 접어 붙이는 기법은 <송림

¹² 한정호, 앞의 논문, pp. 82-83.



도 6 <안압지 출토 금동가위>부분, 통일신라 8~9세기, 금동, 길이 25.5cm,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2007, p. 192)



도 7 <안압지 출토 금동풍경>, 통일신라 8~9세기, 금동, 높이 16.0cm,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 2002, p. 39)



도 8 <안압지 출토 당초문 암막새>, 신라 7~8세기, 폭 25.2cm,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新羅 瓦磚, 아름다운 신라 기와, 그 천년의 숨결』, 2000,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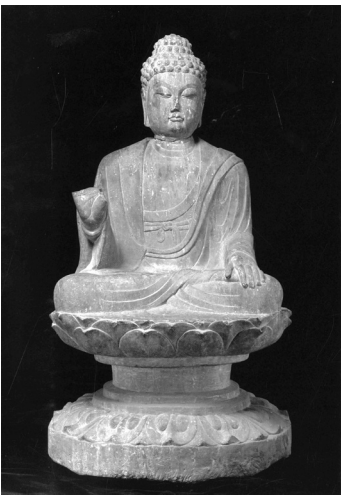
사 오층전탑 사리장엄구(7세기 후반 추정)의 천개 부분에서도 관찰되어, 이미 7세기 후반에 발전되어 유행한 금속공예기법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판에는 12개의 연자문이 보이는데 중앙의 문양은 연판과 광배를 연결한 못자국이며, 이를 중심으로 안쪽은 3개, 가장자리는 8개의 연자문을 배열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불규칙해 보인다. 특히 연판을 광배에 부착하기 위해 만든 정중앙의 못자국 마저도 문양의 도안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적인 설계가 돋보인다.

신광의 중앙 부분은 인동당초문이 선각되었고 고 바탕에는 어자문을 채웠다. 인동당초문은 중앙의 보주를 받치면서 양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뻗어나가 아래로 다시 굽이쳐 모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인동당초문은 唐代 7세기 금속공예품에서 보이는 정형화된 문양과는 차별화된 표현 기법이다. 경주 안압지 출토의 <금동가위>와 <금동풍경>에 역동적이고 자유분방한 인동당초의 흐름이 보여, 이러한 표현이 7세기 후반 신라왕실에서 유행했던 인동당초문의 한 형식으로 생각된다(도 6, 도 7).

광배 가장자리는 안쪽부터 당초문과 화염문이 차례로 투각되었다. 당초문은 S자형 줄기에서 세 잎의 반팔메트가 돌아나는 형식이다. 안압지 출토 기와편에서도 유사한 당초문이 관찰되는데 특히 S자형 줄기의 흐름에 따라 잎이 부드럽게 펼쳐지는 도안이 매우 정교하다(도 8). 화염문은 불꽃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올라가는 형식으로 매우 입체적이며 생동감있게 표현되었다. 안압지 출토 <금동판보살좌상>의 광배에 매우 유사한 형식의 화염



도9 <금동관보살좌상>, 안압지 출토, 통일신라 680년경, 금동, 높이 20.3cm,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명품 100선』, 2007, p. 179)



도10 <석조여래좌상>, 용문석굴 봉선사 발견, 唐, 석조, 龍門石窟研究所(Miho Museum, 『龍門石窟』, 2001, p. 43)

문이 보이는데, 특히 화염이 시작되는 소용돌이의 핵심 부분은 거의 흡사하다(도 9). 그러나 여래좌상의 화염문이 안압지 <금동관보살좌상>의 화염문보다 양감이 더 풍부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당시 신라 화염문의 발달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여래좌상이 안압지 상보다 더 진전된 공예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좌는 원통형으로 구성된 연화대좌로, 상대에는 양련의 연판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불상의 균의자락으로 가려지는 앞부분은 연판을 생략하였다. 이는 불상과 대좌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조하기 전부터 연판을 미리 생략하여 설계한 것이다. 하대는 복련의 연화문으로 연판 끝에 살짝 반전이 있고 연판 가운데에는 서로 구분된 2개의 룡이 솟아있다.

이러한 원통형 연화대좌는 기존의 사각 또는 팔각대좌의 모습과는 다른 형식으로, <龍門石窟 奉先寺 출토 석조여래좌상>의 대좌가 매우 흡사하다(도 10). 그러나 중대부분이 2단으로 나뉜 형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예가 없어 여래좌상에서 새롭게 시도한 형식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여래좌상의 광배는 가장자리에는 화염문과 당초문을 투각하고, 두광의 중앙에는 연자문을 타출한 연판을 오려 부착하였으며, 신광의 중심부는 인동당초문을 선각하고 바탕에는 어자문을 찍었다. 즉 하나의 광배 안에 다양한 공예기법이 총망라되어있어 당시 신라 왕실의 우수한 금속 세공 기술을 집약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광배에 새겨진 문양들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문양과 그 도안이나 기법면에서 유사하고, 특히 안압지 출토 유물들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관찰되어, 이를 통해 700년 전후 신라 왕실에서 발원하고 제작한 최고의 금속공예 기술과 도안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래좌상의 새로운 도상

여래좌상의 수인은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왼손은 손등을 위로 하여서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엮은 모습으로 唐代의 불좌상에는 여럿 관찰되지만, 통일신라에는 아직 알려진 예가 없어, 당에서 유행하던 새로운 도상이 수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당대의 불좌상 중 여래좌상과 동일한 수인을 결한 상을 찾아 그 중 명문이 남아 있는 상을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다.

동일한 수인을 결한 당대의 상 중 가장 이른 예는 <京都 藤井有隣館 석조불좌상>(639년, 唐 貞觀 13年)으로 “馬周가 죽은 伯懿를 위해 조성” 했다는 명문이 있다(도 11).¹³ 비록 아미타라는 존명은 없지만, 이러한 수인이 이미 7세기 초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도 11 <석조여래좌상>, 唐 639년, 석조, 높이 81.0cm, 京都 藤井有隣館(金申 編,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 山西人民出版社, 2007, p. 186)

7세기 중후반에는 중원지역의 석굴 조상에서 그 예가 빈번히 확인된다. <鞏縣石窟 제4굴 124감 아미타삼존불감상>(663년, 唐 龍朔 3年)은 “雍子華가 七代父母를 위해 아미타상을 공양한다” 는 명문이 있다.¹⁴ 또한 鞏縣石窟 3~5굴의 많은 소불감에서 동일한 수인이 자주 관찰됨으로 660~70년대에 이러한 수인의 아미타불 조성이 활발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도 12 <만불동 주존불상>, 唐 680년경, 석조, 높이 5.65m, 龍門石窟 萬佛洞(龍門文物保管所, 北京大學考古系 共編, 『龍門石窟』, 東京: 平凡社, 1991, p. 132)

龍門石窟에도 동일한 수인이 여럿 관찰되는데 <萬佛洞 주존불상>(680년, 唐 永隆 元年)(도 12)은 비록 존명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 수인이 같고, <清明寺洞 삼존불상>(675년, 唐 上

洞 삼존불상)(675년, 唐 上

¹³ “金人覺悟群生幽光遠着護佑之功誠多安全之德莫大信乎聖眷無私恩同再造貞觀十三年歲次己亥五月二十五日中書舍人馬周爲亡伯懿敬造佛像二區.” 金申 編,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山西人民出版社, 2007), p.186.

¹⁴ “大唐龍朔三年歲次癸亥六月癸未朔廿八日弟子雍子華爲七代父母敬造阿彌陀像一區并二菩薩合家供養.” 河南省文物研究所, 文物出版社 共編, 『鞏縣石窟寺』(東京: 平凡社, 1983), p. 308.

元 2年), <奉先寺 출토 석조여래좌상>(7세기 후반)(도 10) 등에서 역시 동일한 수인이 관찰된다. 이외에 龍門石窟의 작은 불감상에서도 동일한 수인은 자주 관찰된다. 이처럼 鞏縣石窟과 龍門石窟등에 보이는 조상의 예를 통해 670-80년대 중국 洛陽지역에서 이러한 수인의 불좌상이 유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3 <석조아미타삼존불상>, 唐 676년, 석조, 높이 37.0cm, 北京故宮博物院(古宮博物院 編, 『你应该知道的 200件 佛像』, 紫禁城出版社, 2007, p. 40)



도 14 <석조아미타불좌상>, 唐 680년, 석조, 높이 30.0cm, 北京故宮博物院(古宮博物院 編, 『你应该知道的 200件 佛像』, 紫禁城出版社, 2007, p. 42)

7세기 중후반 아미타명문이 있는 상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수인의 도상은 좀 더 명확해진다. 680년경 전후에 조성된 北京故宮博物院의 두 아미타상은 명문에 모두 죽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복을 위해 공양하였다는 공통된 발원 성격이 보인다(도 13, 도 14)¹⁵ 이처럼 7세기 후반에 가족의 명복을 비는 아미타불좌상이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층 및 중산층에서도 독립된 상으로 조상되었다는 점은 당시 당에서 이 수인의 도상이 확실히 정립되고 널리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아미타 수인의 사례는 계속 관찰된다. 일본 <書道博物館 아미타불좌상>(711년, 唐 景雲 2年)과¹⁶ 중국 <山西省博物館 아미타불좌상>(728년, 唐 開元 14年)은¹⁷ 비록 오른손은 심하게 결실되었지만, 시무외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도 15, 도 16). 또한

¹⁵ 唐 上元 3년(676)명 아미타삼존불상 “上元三年二月十四日佛弟子□□□爲亡父母及爲見存家口敬造阿彌陀像一塔合家供養.” 古宮博物院 編, 『你应该知道的 200件 佛像』(紫禁城出版社, 2007), p. 40; 唐 永隆 원년(680)명 아미타불좌상 “永隆元年十二月造爲四男亡女敬造阿彌陀像一區合家一心供養.” 古宮博物院 編, 『你应该知道的 200件 佛像』(紫禁城出版社, 2007), p. 42.

¹⁶ “大唐景雲二年...造阿彌陀像一鋪上爲皇帝皇后下及法界蒼生...” 金申 編,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山西人民出版社, 2007), p. 198.

¹⁷ “李道禮造阿彌陀佛...大唐開元十四年...”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 雕塑編』26(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006), p. 16.



도 15 <석조아미타불좌상>, 唐 711년, 석조, 높이 125.0cm, 東京 書道博物館(台東區立書道博物館編, 『台東區立書道博物館圖錄』, 台東:台東區藝術文化財團, 2007, p. 73)



도 16 <석조아미타불좌상>, 唐 726년, 석조, 155.0cm, 山西省博物館(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 雕塑編』26,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006, p. 44)

<上海博物館 아미타 불좌상>(723년, 唐 開元 癸亥)(도 17)은 “佛弟子 相里□征이 망자를 위해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동일한 수인을 한 아미타상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¹⁸ 명문이 있는 상으로는 <베를린 동아시아예술 박물관(Museum fur Ostasiatische Kunst, Berlin) 아미타불좌상>(746년)이 지금까지 상들 중 시대가 가장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17 <석조아미타불상>, 唐 723년, 석조, 上海博物館(필자 촬영)

이처럼 당대의 불상 중 동일한 수인을 결한 명문이 있는 상을 정리해 본 결과(표 1), 현재까지는 총 21구의 불좌상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15구가 아미타 명문이 있는 상이었고, 그 15구의 아미타불상 중에 7구가 망자의 명복을 비는 추선 목적의 상이었다. 또한 아미타불이 아닌 6구의 상은 모두 명문에 존명이 언급되지 않은 상이어서, 아미타불상 이외의 다른 존명을 가진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본 수인이 아미타도상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증거라 생각된다. 게다가 명문이 확인된 예를 통해 이와 같은 아미타수인은 639년에 처음으로 보이며 746년의 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7세기 중후반경 당에서 새롭게 정립되어, 8세기 중반까지 중국 중원지역에서 아미타불 수인의 하나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¹⁸ “...佛弟子相里□征奉爲亡□□及爲見存家□敬造阿彌陀像一軀...” 필자 확인.

표 1 금제여래좌상과 동일한 수인을 결한 唐代 명문이 있는 불상

연번	소장처 및 명칭	연대	조상기 주요내용
1	京都 藤井有隣館 석조불좌상	唐 貞觀 13年 (639년)	馬周가 죽은 伯懿를 위해 발원
2	워싱턴 프리어갤러리 아미타삼존불비상	唐 顯慶 2年 (657년)	趙峻과 아내가 칠대부모와 법계중생 모두의 성불을 위해 아미타상을 발원
3	上海博物館 석조삼존불상	唐 龍朔연간 (661-663년)	韓弁智가 돌아가신 모친을 위해 발원
4	鞏縣石窟 제4굴 124감 아미타삼존불감	唐 龍朔 3年 (663년)	雍子華가 칠대부모를 위해 아미타상과 2구의 보살을 공양
5	東京 永青文庫 석조불좌상	唐 咸亨 3年 (672년)	명문에 존명 불언급
6	北京故宮博物院 朱文榮 外 조상 석조불좌상	唐 上元 元年 (674년)	朱文榮 외 3명과 等慈寺 승려 4명 등이 친황친 후와 아래로 7대부모, 현재권속과 법계창생 위해 발원
7	龍門石窟 清明寺洞 석조삼존불상	唐 上元 2年 (675년)	왕인각 발원
8	北京故宮博物院 아미타삼존불상	唐 上元 3年 (676년)	불제자 □□□가 돌아가신 부모와 현재 가족을 위해 공양
9	龍門石窟 萬佛洞 주존불상	唐 永隆 元年 (680년)	다양한 존명에 대한 설
10	北京故宮博物院 王处信 발원 아미타삼존불상	唐 永隆 元年 (680년)	王处信이 돌아가신 부친을 위해 공양
11	北京故宮博物院 아미타불좌상	唐 永隆 元年 (680년)	4남과 죽은 여인을 위해 가족이 일심으로 공양
12	臺灣 禮濼藝術品公司 아미타삼존불감상	唐	왕법력 등이 東行男과 법계중생을 위해 발원
13	워싱턴 프리어갤러리 아미타불비상	唐 永隆 2年 (681년)	노공즉을 비롯한 4남매가 돌아가신 부친과 살아계신 모친, 7대 선망부모를 위해 발원
14	長安 光宅寺 七寶臺 아미타 삼존불상	唐 長安 3年 (703년)	王瑋銘
15	東京 書道博物館 아미타불좌상	唐 景雲 2年 (711년)	呂義 16인이 황제황후와 법계창생 모두가 번뇌 에서 벗어나 정각에 이르기를 바라며 발원
16	洛陽古代藝術館 아미타삼존불감상	唐 景雲 2年 (711년)	명문 미확인
17	秦氏 발원 석조아미타불상	唐 開元 3年 (715년)	秦弘智가 살아계신 조모와 죽은 남자 □□를 위해 발원
18	臺灣 震旦藝術博物館 아미타불좌상	唐	李阿師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조성
19	上海博物館 아미타불좌상	唐 開元 癸亥 (723년)	相里□征이 돌아가신 부친을 위해 조성
20	山西省博物館 아미타불좌상	唐 開元 14年 (728년)	李道禮 발원상(조성이유 무)
21	베를린 동아시아예술박물관 아미타불좌상	(746년)	명문 미확인

이와 같은 당대 불좌상의 예는 구황동 금제여래좌상이 7세기 중후반경에 당에서 새롭게 정립되어 유행하던 아미타의 도상을 통일신라에서 빠르게 수용하여 제작한 8세기 초의 아미타 불이라는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된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된 당대 아미타상의 예와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덕왕이 조성한 금제아미타상과의 성격이 일치한다는 점은 금제여래좌상을 추선 목적의 아미타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7세기 중후반경 당에서 새롭게 유행한 아미타수인의 도상이 어떻게 706년 신라 경주의 석탑에 봉안될 수 있었을까? 이는 성덕왕대 아미타신앙의 유행과 잦은 당과의 교류를 통한 빠른 문물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먼저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효소왕대에 金仁問이 당에 있을 때 만들었던 觀音도량인 仁容寺를 김인문이 귀국 도중 죽자, 彌陀도량으로 바꾼 기록,¹⁹ 성덕왕대 五臺山에 아미타불을 비롯한 五萬眞身이 상주하였다는 설화와²⁰ 南月山 甘山寺에 미륵과 미타상을 봉안하였다는 기록²¹ 등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신라에서 아미타신앙이 유행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예이다. 특히 성덕왕대에는 아미타신앙에 관한 설화 및 신앙 사례에 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된다. 아미타신앙은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에 대해 아미타불의 臨終來迎으로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아미타신앙은 국가를 위한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던 중고기의 신라인들에게는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고 통일신라 초반의 대표적인 신앙이 될 수 있었다.²²

둘째 당시 신라와 당의 문화교류가 매우 적극적이고 빨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三國史記』에는 703년(성덕왕 2)에서 구황동 석탑에 금제여래좌상이 봉안되는 706년(성덕왕 5)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遣唐使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특히 705년에는 3월과 9월에 2번, 706년에는 4월, 8월, 10월에 총 3번에 걸쳐 견당사를 파견하였다.²³ 성덕왕대에 일반적으로 매년 1회의 견당사가 파견되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잦은 것이다. 견당사의 파견이 잦아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한역된 704년과 금제여래좌상이 봉안되는 706년을 포함하는 기간은 그만큼 당의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이로써 당시 당

¹⁹ 『三國遺事』卷2 紀異 文虎王法敏條.

²⁰ 『三國遺事』卷3 塔像 台山五萬眞身條.

²¹ 『三國遺事』卷3 塔像 南月山條.

²² 김영미,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신앙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50·51(한국사연구회, 1985), p. 42.

²³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第8 聖德王條. “四年春正月, 中侍元文卒, 以阿澣信貞爲中侍. 三月, 遣使入唐朝貢. 夏五月, 旱. 秋八月, 賜老人酒食. 九月, 下教禁殺生. 遣使如唐獻方物. 冬十月, 國東州郡饑, 人多流亡, 發使賑恤. 五年春正月, 伊滄仁品爲上大等. 國內饑, 發倉廩賑之. 三月, 衆星西流. 夏四月, 遣使入唐貢方物. 秋八月, 中侍信貞病免, 以大阿澣文良爲中侍. 遣使入唐貢方物. 穀不登. 冬十月, 遣使入唐貢方物. 十二月, 大赦.”

에서 유행한 최신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아미타도상이 신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일신라 초기 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3. 여래좌상의 양식적 특징

1) 얼굴의 표현

여래좌상은 무늬가 없는 소발에 높고 큰 육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얼굴은 장방형에 가깝고 턱과 볼 주변이 통통하여 전체적으로 풍만한 느낌이 든다. 이목구비는 선이 뚜렷하여 입체적이고 이마, 눈두덩이, 광대는 팽팽하여 볼륨감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얼굴의 표현은 기존의 삼국시대 불상과는 확연히 다른 당의 양식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7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안압지 삼존관불>(도 18)과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불입상>(도 19)과 계통을 같이하는 것으로 통일신라 초기의 금동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두 상에 비해 여래좌상의 얼굴은 눈을 좀 더 크게 떠 살짝 눈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과 코는 더 입체적이고 오뎅하며, 인중과 입술은 양감이 풍부하다. 또한 안압지와 국립중앙박물관 불상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평면적인 느낌이 드는 반면 여래좌상은 이마와 눈두덩이 그리고 광대가 동그스름하게 튀어나와 팽창감이 느껴지며 탄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여래좌상의

얼굴은 여유롭게 웃음 띤 약간의 미소와 함께 전체적으로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처럼 7세기 후반의 상들보다 양감이 풍부하며 자연스러운 얼굴의 표현은 여래좌상이 안압지상보다 양식적으로 더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래좌상이



도 18 <금동삼존관불>얼굴, 안압지 출토, 통일신라 680년경, 높이 27.0cm,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2007, p. 177)



도 19 <금동불입상>얼굴, 통일신라 7세기 후반, 높이 20.4cm, 국립중앙박물관

706년이라는 확실한 제작연대가 있기 때문에 안압지 상의 편년을 680년경으로 보는 학설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불신의 표현

여래좌상은 넓은 어깨와 가슴을 펴고 앉은 당당한 모습에 통견식의 대의를 걸치고 깊게 파인 가슴 안에는 사선으로 승기지를 착용하였다. 대의의 옷주름은 U자형을 그리며 다리를 완전히 덮고 균의자락은 아래로 계속 늘어져 대좌의 앞부분을 덮는 상현좌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통견식 대의와 상현좌의 표현은 7세기 중엽의 <경주 인왕동 석조불좌상>에서 그 유사한 형식이 관찰되어 신라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도 20). 그러나 여래좌상은 실제로 옷을 걸친 듯 옷주름을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마치 오로라가 펼쳐지듯 겹겹으로 떨어지는 입체적인 상현좌의 모습은 인왕동 상보다 더 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표현은 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무외인을 한 오른손은 손바닥에 손금이 새겨져있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구분하는 마디 주변에는 양감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손가락



도 20 <석조여래좌상>, 경주 인왕동 출토, 신라 7세기, 석조, 높이 91.0cm,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1995, p. 65)

을 살짝 오므려 마치 움직이려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은 생동감이 느껴지며 손의 각도가 실제 손을 들었을 때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어 매우 사실적이다. 왼손은 엄지를 손바닥쪽으로 바짝 붙여 손등이 둥글게 솟아오른 듯한 부피감을 정확히 표현하였고 마치 손을 다소곳하게 모아 무릎에 얹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다. 이는 상을 만들면서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래좌상은 풍만한 얼굴과 당당한 신체, 착의법과 상현좌 등에서 새로운 당양식의 영향이 보이는 불상이다. 그러나 조각기법에서 보이는 매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과 인체의 움직임까지 잡아내려는 생동감 있는 표현은 동시대 당대의 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제여래좌상의 존명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사리외함의 명문 내용을 분석하고, 여래좌상의 동일한 수인을 결한 당대 불좌상의 예를 정리하였으며, 광배와 대좌의 구조와 문양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불상의 양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보겠다.

먼저 구황동사지의 성격이다. 명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구황동 석탑은 신문왕의 명복을 빌면서 만든 탑이다. 이는 석탑이 낭산 자락의 바로 아래이자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뒤편의 조금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부도탑과 같은 배치를 보인다는 특징과 <감은사지 삼층석탑>(682년, 10.1m)이나 <고선사지 삼층석탑>(682-686년경, 10.4m)과 같은 동시대의 탑들에 비해 유난히 작다는 점(6.7m)을 통해서도 재증명된다. 또한 『三國史記』에는 “신문왕을 낭산의 동쪽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²⁴ 현재 구황동사지에는 주로 왕릉의 봉분에 사용되는 8구의 십이지신상이 산재되어 있다. 때문에 구황동사지에 소재했던 사찰은 적어도 석탑이 세워지는 7세기 후반에는 왕릉 옆에 위치하여 일종의 陵寺의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²⁵ 즉 구황동사지에 존재했던 사찰은 692년 신문왕의 묘탑이 건립되고, 이후 706년에 성덕왕이 아버지인 신문왕과 형인 효소왕의 명복과 성덕왕 자신과 왕후 및 왕실가족의 수복을 기원하며 추가로 사리장엄구와 금제아미타불좌상을 봉안한 사실, 석탑의 크기와 배치, 십이지신상의 존재, 『三國史記』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신문왕의 원찰로서 그 아들인 성덕왕대까지 신라왕실의 또 하나의 주요사찰로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황동사지는 차후 발굴을 통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찰지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여래좌상의 중요성이다. 여래좌상은 성덕왕이 직접 발원하여 신라왕실 최고의 장인이 순금으로 제작한 706년이라는 제작연대를 지닌 통일신라 불상이다. 특히 불신은 극히 드문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광배는 투각, 선각, 타출, 인화 기법 등 당시 유행했던 다양한 금속공예기법들이 총망라되었다. 또한 통통하고 양감이 풍부하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얼굴의 표현과 사실성과 생동감 넘치는 불신의 표현,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진 옷자락의 부피감과 질감의 강조는 비교되는 사례가 없을 정도의 완벽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된 제작기법의 바탕 위

²⁴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第8 神文王條. “秋七月, 王薨, 諡曰神文, 葬狼山東.”

²⁵ 현재 傳 신문왕릉은 낭산의 남측이자 경주시 배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효소왕릉으로 보고 신문왕릉은 구황동사지 근처에 존재하였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본 논고는 신문왕릉의 위치에 대한 검토보다는 우선 현재 구황동사지에 십이지신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논지를 개진하였다. 강우방, 『新羅 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 『佛敎美術』1(동국대학교 박물관, 1973), pp. 28-31. 참조

에 당에서 새롭게 유행한 아미타수인까지 결합하여 당시로써는 최신의 금제아미타불상을 제작하였다. 이는 700년대 초의 불상에서 8세기 중반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양식의 모습이 이미 보인다는 점에서도 최신의 경향이 얼마나 잘 반영된 상인가를 알 수 있다.

구황동 금제여래좌상은 통일신라 700년 전후 현재는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 신라 왕실의 조각과 공예의 우수성을 살펴 볼 수 있는 통일신라 초기의 불상을 대표하는 귀중한 상이다.

***주제어(Key Words)** 구황동사지, 황복사지, 구황동 삼층석탑, 황복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79호, 금제여래좌상, 금제아미타불상, 아미타수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 투고일 2013년 11월 29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2월 7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월 27일 ■

참고문헌

1. 한국 문헌

1) 사료 및 단행본

金富軾, 『三國史記』/노중국 외, 『(譯註)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一然, 『三國遺事』/강인구 외, 『(譯註)三國遺事』, 以會文化社, 2002-2003.

김리나,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일조각, 1989.

_____, 『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 문예출판사, 2003.

배진달, 『당대 불교조각』, 일지사, 2003.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황수영,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94.

2) 논문

강우방, 「新羅 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 『佛敎美術』 1, 1973. pp. 25-75.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pp. 317-355. 재수록)

김복순, 「義湘과 皇福寺」,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pp. 145-159.

_____, 「신라 중대의 불교」, 『신라문화』 25, 2005. 2, pp. 1-22.

김상현, 「신라 중대 왕실의 불교신앙」,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pp. 106-150.

김수태, 「新羅 聖德王, 孝成王代 金順元의 政治적 활동」, 『東亞研究』 3, 1983. pp. 205-231.

김연, 「황복사석탑 사리함명문 서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3.

김영미,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신앙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50·51, 1989, pp. 37-78.

김원룡, 「韓國美術史研究의 二·三 問題」, 『亞細亞研究』 7-3, 1964, pp. 53-67.

김재원, 「The Stone Pagoda of Kuhwang-ri in Korea」, *Artibus Asiae*, vol. XIII, 1/2(1950), pp. 25-38. (金載元, 「慶州 九皇洞 石塔 出土 舍利器 및 佛像」, 『韓國과 中國의 考古美術』, 문예출판사, 2000, pp. 87-99. 한글로 재수록)

김화영, 「韓國 佛像臺座形式의 研究 -金銅佛을 中心으로-」,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pp. 609-630.

_____, 「韓國 佛像臺座形式의 研究(II) -石造臺座(1)-」, 『사학지』 4, 1970, pp. 137-170.

문명대, 「통일신라 불상조각과 당 불상조각과의 관계」, 『통일신라 미술의 대외관계』, 예경, 2001, pp. 37-84.

박경식, 「新羅 典型期 石塔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0, 2003, pp. 127-148.

박영민,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좌상의 양식의 고찰」, 『불교미술』 23, 2011, pp. 95-121.

- 심우준, 「廣州九黃里 皇福寺 石塔藏 무구정광대다라니경 '銘文'과 實物」, 『서지학연구』 29, 2004, pp. 5-13.
- 이영희, 「古代 三國·統一新羅의 匠人」, 『미술사학연구』 241, 2004, pp. 146-169.
- 이홍직, 「慶州狼山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論攷』, 韓國文化叢書 第14輯, 乙酉文化社, 1954, pp. 37-59.
- 정병삼, 「皇福寺 金銅舍利函記」, 『(譯註)韓國古代金石文』 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pp. 346-350.
- _____, 「7세기 후반 신라불교의 사상적 경향」, 『불교학연구』 9, 2004, pp. 153-175.
- 조이옥, 「新羅 聖德王代 唐外交政策 研究」, 『梨花史學研究』 19, 1990, pp. 77-97.
- 주경미, 「韓國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불교미술사학』 2, 2004, pp. 165-196.
- 주수완, 「皇福寺 全金佛立像 연구」, 『불교미술사학』 4, 2006, pp. 39-63.
- 한민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한정호, 「경주지역 신라 전형석탑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불교고고학』 4, 2004, pp. 99-121.
- 한정호, 「慶州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 『미술사논단』 22, 2006, pp. 61-88.
- 황수영, 「慶州 傳皇福寺址의 諸問題」, 『考古美術』 9권 8호(통권97호), 1968, pp. 430-432. (『黃壽永全集』, 혜안, 1998, pp. 575-578. 재수록)

3) 도록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1995.
- 국립경주박물관, 『新羅 瓦塼, 아름다운 신라 기와, 그 천년의 숨결』, 2000.
-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 2002.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金銅佛』, 2002.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2007.
-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조각』, 2008~2009.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신라 금석문 탁본전』, 2008.

2. 동양 문헌

1) 논문

- 梅原末治, 「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の舍利容器」, 『美術研究』 156, 1950, pp. 31-47.
-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彰國社, 1944, pp. 98-99.
- 淺井和春, 「皇福寺跡三層石塔發見の二体の金製佛像」, 『佛教藝術』 188, 1990, pp. 80-92.

2) 도록

- 古宮博物院編, 『你应该知道的 200件 佛像』, 紫禁城出版社, 2007.
- 金申編, 『海外及港台藏历代佛像』, 山西人民出版社, 2007.

劉景龍 主編,『龍門石窟造像全集 1-2』,北京:文物出版社,2002.

Miho Museum,『龍門石窟』,2001.

龍門文物保管所,北京大學考古系 共編,『龍門石窟』,東京:平凡社,1991.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中國美術全集:雕塑編』26,北京:人民美術出版社,2006.

台東區立書道博物館 編,『台東區立書道博物館圖錄』,台東:台東區藝術文化財團,2007

3. 서양 문헌

Howard, Angela Falco, Wu Hong et al, *Chinese Sculpture*, New Haven : Yale University and Foreign Languages Press, 2006.

Rhie Marilyn Martin, *Early Buddhist art of China and Central Asia*, 1-2, Leiden : Brill, 2002-2007.

국문초록

국보 제79호인 구황동 금제여래좌상은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傳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 하나로 12.2cm의 작은 크기에 광배와 대좌는 금동으로, 불신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함께 발견된 사리함 명문에 의하면, 구황동 삼층석탑은 692년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되었고, 706년 성덕왕이 불사리 4과, <순금아미타상> 1구,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추가로 봉안했던 통일신라 왕실 발원 석탑이다. 그러나 순금아미타상 1구를 봉안하였다고 기록과는 달리, 석탑 안에서는 실제로 좌상과 입상 2구의 금제여래상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두 상이 결한 수인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어 두 상 중 어느 상이 아미타상인지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고는 먼저 금제여래좌상이 명문에 기록된 아미타상임을 검증하기 위해 여래좌상과 동일한 수인을 결한 唐代의 불상 중 명문이 있는 상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총 21구의 불좌상을 확인하였고, 그 중 15구가 아미타상이라는 명문이 있었으며,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반까지 중국 중원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행한 아미타수인의 하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금제여래좌상은 당의 새로운 아미타도상을 빠르게 수용하여 제작한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검증되었고 특히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된 당대 아미타상의 예는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덕왕이 조성한 아미타상과 그 성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여래좌상을 706년 구황동 석탑에 안치한 금제아미타상으로 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금제여래좌상의 광배와 대좌의 구조와 문양, 불상의 형식과 양식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불신은 극히 드문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광배는 투각, 선각, 타출, 인화 기법 등 당시 유행했던 다양한 금속공예기법들이 총망라되었다. 또한 양감이 풍부하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얼굴의 표현과 사실성과 생동감 넘치는 손의 표현,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진 옷자락의 부피감과 질감의 강조는 비교되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이처럼 700년대 초 신라왕실에서 성덕왕이 직접 발원하고 신라왕실 최고의 장인이 순금으로 제작한 금제여래좌상은 당시 신라의 발달된 제작기법의 바탕 위에 당에서 새롭게 유행한 아미타수인을 결합한 최신의 금제아미타불상이다. 이는 통일신라 초기 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이자, 통일신라 700년 전후 신라 왕실의 조각과 공예의 우수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Abstract

Study on Gold Seated Buddha in Three Story Stone Pagoda in Guhwang-dong, Gyeongju

Lim Sewoon *

Gold Seated Buddha in Guhwang-dong (National Treasure No. 79) is a sarira reliquary discovered inside the Three Story Stone Pagoda in Guhwang-dong, Gyeongju (known as Three-story Stone Pagoda in Hwangboksa Temple Site). The object is 12.2 cm tall, with its halo and pedestal made of gilt bronze and the body of the Buddha made of pure gold. According to the letters inscribed on the reliquary, the Three Story Pagoda was built to commemorate the soul of King Sinmun (r. 681-692) of Silla in 692. In 706, King Seongdeok (r. 702-737), a son of King Sinmun, placed four sariras, a pure-gold Amitabha Buddha statue, and a volume of the Pure Light Dharani Sutra into the pagoda. What was actually recovered from the pagoda were two golden Buddha statue (one standing and the other seated) instead of a pure gold Amitabha Buddha statue. The hand position displayed by the two statues was something quite new, and different from those found earlier in the country. Thus, it was difficult to know which of the two was really an Amitabha Buddha.

Carrying out this study, we examined Buddha statues containing inscribed letters among those made during the Tang China period that displayed the same hand position as this one, in order to see which one is an Amitabha Buddha. We identified a total of 21 seated Buddha statues and saw that 15 out of the 21 contained inscribed letters matching those associated with Amitabha Buddha. We also saw that the hand position was one of those that appear in Amitabha Buddha statues which were vogue in central China between the mid-7th and the mid-8th century. Thus, it was found that the seated Buddha was an Amitabha Buddha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produced following the rapid adoption of a new Amitabha Buddha statue from Tang China. We were able to present a substantial basis for viewing the seated Buddha, which was placed inside the stone pagoda in 706, as the gold Amitabha statue, since Amitabha Buddha statues produced to commemorate the souls of the dead during the Tang China period corresponded exactly to the one produced under the order of King Seongdeok to honor the soul of his dead father.

Next, we closely examined the structure, patterns of the halo and the pedestal of the golden seated Buddha, along with the style and pattern of the statue. We saw that the body of the Buddha was made of pure gold, which is a really extraordinary thing. As for the halo, it was made using diverse metal craft techniques, including incised holes, line engraving, the use of a striking device, and a stamped design, all of which were in vogue at that time. Features such as the plump appearance of Buddha, its soft and natural facial expression, the portrayal of hands full of liveliness, and the robe naturally extended downward, are thought to be exceptional in that no comparable examples have been identified.

The pure-gold seated Buddha, which was made by a first-rate craftsman on the order of King Seongdeok for his deceased father in the early 700s, was one displaying the unique hand position of an Amitabha Buddha statue, which was newly in vogue at the time in Tang China. It is a precious artifact displaying the advanced sculptural skills of Unified Silla. It also tells us that in its early days Unified Silla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 Tang China and took a proactive attitude to the assimilation of its advanced culture.